

# 새천년을 향한 물 관리정책의 과제와 방향

## I. 문제의 제기

- 지금까지의 물관리정책은 수량 확충을 위해서 대규모의 댐의 지속적인 건설을,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처리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만에 치중하여 물문제가 지니고 있는 종합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.
  - 부족한 수량은 공급확대로만 극복하려 하였지 절수 등을 통한 물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은 미흡.(댐건설위주의 단조로운 물관리)
  - 수질관리도 수처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확충에만 치중하여 시설운영의 효율(적정운영과 보수관리), 그리고 생태계와의 통합적 관리 등의 고려가 미흡.
  - 물자원이 결국 특정지역의 개발 및 발전의 한계를 규정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수리권 등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정립되지 못하여 지역간 수질 및 수량분쟁을 유발.(지방자치이후 특히 격화됨)
  
- 물문제는 국가를 막론하고 수량확보 정책에서 수질관리로, 수량과 수질 그리고 생태계와의 통합관리로 발전하고 있음.
  - 초기의 물관리정책은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자원 개발이,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수질오염이 심화되자 수질보전정책이,
  - 그리고 총체적인 물문제가 출현한 현재에는 수량, 수질, 생태관리 등의 통합관리가 모색되고 있음.
  
- 21세기 물관리정책은 커다란 방향에서 종래의 “물자원개발”에서 “물자원관리”로, 즉 “하드웨어지향적인 개발정책”에서 “소프트웨어중심적인 관리정책”으로 전환되어 종합계획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.
  - 21세기 물부족 문제, 즉 물전쟁이 예견되는 21세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다양한 정책수단과 기술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활용하여야 함.
  - 현대의 수자원문제는 공학 뿐만 아니라 경제, 정치, 사회, 법 등 각종 분야의 지식과 예지가 총동원되어야 해결이 가능

## II. 새천년 물관리정책의 수립 및 운용 기초

### 1. 물문제의 특성과 물관리 원칙

- 물이란 매체로서의 “물”과, 이것의 이동통로 및 저장장소로서의 하천과 호소, 그리고 거기에 서식하는 동식물(수생태계)은 하나의 “수환경체계”를 구성.
- 물이란 기본적으로 자연독점재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.
  - 그러나 그 개입의 목적은 기초수요(basic needs)로서의 물의 공급 및 시장의 비효율 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화되어야 함.
- 물관리정책에서는 경제의 원칙(economy), 공평의 원칙(equity), 보존의 원칙(conservation), 생태의 원칙(ecology) 등의 원칙에 존중되어야 함.

### 2. 수리권 등 물관리 정책기조의 재정립

- 늘어나는 물관련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수리권에 대한 확고한 정립이 필요. 우리나라의 경우 수리권은 그 법적 지위가 매우 모호한 상태.
  - 단일한 물관리법이 없이 민법, 하천법, 그리고 다목적댐법 등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물의 이용과 관리를 관장하고 있으며 때로는 이들 조항들이 상호 충돌하는 측면도 많음.
- 물관리기본법(가칭)을 제정하여 이제 수리권은 개인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가 물관리정책에 따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특혜임을 분명하게 해야 함.
  - 물관리기본법은 수리권과 관련된 허가기준과 절차, 기존 수리권의 등록과 재허가 등은 물론 물관리기구, 물배분원칙과 절차, 갈수기의 물배분, 물분쟁 조정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.

### 3.물관리 정책의 수립(규제)과 집행(시행) 시행 기능의 분리

- 통상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독점적인 의사결정 보다는 다원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존중되어야 함. 그러나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.

- 물관리체계는 물관리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분리하고 전자는 중앙이 후자는 별도의 집행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.

·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수량과 수질 문제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다소 유연한 의사결정체계가 바람직.

※ 단 상수도업무는 지금과 같이 광역(건교부), 지방(환경부)으로 나누어 정책운동을 하는 것은 그 효율성에 있어서 의문.

- 그러나 수립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는 양자가 통합된 집행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봄. 그리고 집행기능 중 전문관리와 시장성이 있는 기능은 민영화한다는 기본원칙으로 정비.

· 경제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사업성격의 물관리업무는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.

※ 하수처리장 등 수질관리 기능은 물론 정수장 등 수자원관리 기능도 민영화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기술발전을 촉진시켜야 함.

### 4. 유역통합형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

- 치수, 이수, 수질관리, 하천환경을 통합하는 유역별 물관리체계를 확보하여 수계단위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전문관리를 강화.

- 5대강 유역별로 물관리청을 설치하여 기존의 각종 물관리정책 집행기관을 통합.

- 유역물관리청내의 의견조정기구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(가칭)를 구성.
  - 동 위원회는 중·장기 유역물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며 지역간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조정하는 기능도 담당.
  - 물관리청장은 임기제의 개방직으로 임용하며 예산권과 인사권에 있어서 다소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.
- 물관리사업에 대한 민영화가 진전되면 유역관리청은 민간물회사 업무에 대한 규제기능을 담당.

### III.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의 수립과 추진

- 향후의 물관리정책은 물수요관리로 효율성 증진, 대체수자원의 지속 개발로 공급원의 확대, 그리고 수환경 통합관리로 생태계의 보전 등의 기본구조하에서 통합적인 정책추진이 필요.

#### 1. 물이용 효율 증진을 위한 수요관리 강화

- 물수요관리를 통한 절수로 물에 대한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한데, 이에는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물가격의 현실화와 요금구조를 통한 수요관리가 필요.
  - 물가격을 비용수준으로 현실화하고, 누진체계를 강화하며 계절별 요금제 등을 도입하며 각종 절수기기 및 절수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. (절수와 수량확보 계획이 통합된 통합물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
- 우리사회에 만연한 물낭비 풍조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상수도 요금의 영향이 큼.
  - 또한 지역 및 광역 상수도로 이원화된 체계에서 국고보조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 역시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음.
- 광역상수 공급의 지역적 편중은 지역간 물이용 여건의 차이를 가져와 물이용과 관련된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됨.
  - 광역상수도에 속한 지역을 우선으로 물 값에 대한 현실화하여 광역수도지역과 지방수도지역간의 효율 격차를 줄이며 지역의 중소규모 상수원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.

#### 2. 순환적 물이용 및 대체수자원 개발로 공급확대

- 중수도 및 무방류청정기술 등의 확대 보급로 물의 재이용 풍토를 정착하며 수돗물에 대한 누수방지대책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.

- 절수기기의 보급이나 가정용품의 물이용 효율을 증진, 물효율등급제 활용, 다량의 용수를 이용하는 기업체나 지자체에 대한 자율절수운동 등을 전개.
- 물부족시대를 위한 예방적인 정책(no regret policy)로서 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대체수자원의 개발과 보전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.
  - 도서지역을 위한 해수담수화, 질 낮은 상수원수에 대한 고도정수처리기술, 대규모댐을 대체하는 중소규모댐의 개발과 활용,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그리고 인공함양 등 다양한 대체수자원 개발기술의 확보 필요
- ※ 하류오염을 빙자한 상류댐의 지속적인 건설보다도 하류의 막대한 수자원을 보전하고 정수 처리하는 기술확보가 필요 (한강 등 5대강 하류에는 현재 막대한 용수가 오염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음)

### 3. 여타 정책분야와 연계된 물관리 정책의 추진

- 물자원관리는 인간의 경제 및 사회 활동과 자연계에서 다양한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.
  - 그러므로 국토계획(도시 및 공단개발), 환경관리, 에너지개발 산림녹화(녹색댐), 농업생산(비점오염원관리)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연계되거나 병행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.
- 도시화와 토지이용, 산업정책, 에너지정책 등은 물관리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종합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.
- 수환경관리체계의 강화 그리고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관리 그리고 경제개발 및 토지이용계획과 물관리간의 조화와 연계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.